

국민쇄신운동당(MORENA)의 창당과 로페스 오브라도르

조영현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stituto Nacional Electoral)는 2014년 7월 10일자로 3개 신당 창당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선거법이 요구한 22만 명 정도의 최소 당원 확보와 같은 기본적인 정당 설립 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이로서 멕시코에서는 기존의 7개 정당에 3개의 신당을 합하여 총 10개의 정당이 활동하게 되었다. 이번에 창당된 정당은 8월 1일부로 전국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정당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주요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¹⁾ 선거에서 최소 3%의 득표율을 유지하는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정당으로서 계속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개의 신당 중 가장 주목을 받은 정당은 2006년과 2012년 대선 당시 멕시코 좌파의 대선후보였던 로페스 오브라도르(López Obrador)가 지도자로 있는 국민쇄신운동당(Partido de Movimiento Regeneración Nacional)이다.²⁾

위의 자료는 제도혁명당(PRI)의 당원 수가 580만 명 정도로 예전의 규모를 회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멕시코 좌파를 대표하는 민주혁

1)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국민쇄신운동당은 정당지원금 3630만 페소를 지급받게 된다.

2) 흔히 모레나(MORENA)로 표기한다.



(출처:La Razón, 2014년 7월 15일, 1면)

명당(PRD)은 380만 명 규모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놀라운 점은 국민행동당(PAN)의 당원수가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186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창당 75주년을 맞이하는 2014년에는 27만 명 선으로 급감했다는 것이다. 위의 자료는 국민행동당이 멕시코의 주요 정당으로서의 위상에 많은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세력이 크게 위축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 준다. 현재 국민행동당이 다음 선거를 대비하여 정강정책에 동조하는 지지자를 규합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런 위기의식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신당인 국민새신운동당이 10개 정당 중 7번째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정당은 신당임에도 불구하고 당원 수가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아직도 조직이 정비되지 않았고, 계속 성장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5년 선거기간까지는 민주혁명당에 이어 3위를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당이면서도 전국적인 조직력을 자랑하는 국민새신운동당은 갑작스럽게 탄생한 정당이 아니다. 이 당의 출발은 2006년 대선에서 0.56%의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2007년 펠리페 칼데론(Felipe Calderón) 정부에 대해 ‘멕시코의 합법적 정부’를 구성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지지자들은 시민사회운동이나 민중운동 형태로 오브라도르를 지원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2012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기존 정당과는 무관한 이 조직을 규합해 광범위한 시민사회운동을 만들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에서 제도혁명당의 페냐 니에토(Peña Nieto)에게 패배했고, 민주혁명당 내에서도 정치적 위상이 약화되었다.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했던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2012년 말엽에

국민쇄신운동이란 조직을 정당체제로 전환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 정당에 ‘운동’이란 이름이 따라붙는 이유도 민중운동, 혹은 시민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결국 멕시코의 선거 정국, 좌파의 분열과 위기, 그리고 좌파 내 주요 정치세력의 권력투쟁 속에서 국민쇄신운동당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여론조사 기구인 미토프스키(Mitofsky)는 최근 신당, 그 중에서도 정치적 의미가 큰 국민쇄신운동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7개의 정당의 숫자에 대해 응답자의 66.6%는 많다고 여기고 있었고, 11.2%는 적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8.3%만이 적당할 숫자라고 대답했다. 국민쇄신운동당에 대해 들어봤다는 사람은 57.4% 정도였고, 39.7%는 처음 들었다고 응답했다. 이 정당을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연결시키는 응답자는 36.9%였다. 앞으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7.1%에 머물렀다. 이 당이 민주행동당과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6.9%나 되었다. 3.4%의 응답자는 이 당을 나쁜 정당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쇄신운동당 창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61.1%로, 찬성하는 비율인 27.7%보다 월등히 높았다. 응답자 중 65%는 이 신당이 선거에 참여해도 투표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고, 25.8%는 투표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민주혁명당 당원 중에서 72.6%는 경우에 따라 국민쇄신운동당에 투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³⁾.

위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국민쇄신운동당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시사주간지 『프로세스』(Proceso)는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신당 창당으로 2018년 대선을 향한 3차 도전을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신당의 출현과 함께 이미 2018년을 향한 대선 가도에 들어섰다고 본 것이다⁴⁾. 국민쇄신운동당은, 여러 계파가 난립하는 민주혁

3) 국민쇄신운동당 창당과 관련한 미토프스키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enlaxemexico.info/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4634:-la-opinion-de-los-mexicanos-sobre-morena&catid=109:reporte-especial&Itemid=184

4) <http://www.proceso.com.mx/?p=377802> 참조.



로페스 오브라도르 (출처: <http://mexico.cnn.com/media>)

명당과 달리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이런 전망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멕시코 정치에 핵심 인물인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새로운 정당을 등에 업었다는 것은 멕시코 정치지형에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1500만 표를 획득했고, 이 표는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표였다. 선거전문가들은 적어도 이 표 중 1100만 표는 직접적으로 로페스 오브라도르라는 인물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Excelsior, 2014년 2월 4일). 2012년 민주혁명당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서도 당원 열 중 여덟 명이 멕시코시티의 현직 시장이던 마르셀로 에브라도(Marcelo Ebrard) 대신 로페스 오브라도르를 지지했으며, 지난 대선에서도 집권당인 국민행동당 후보를 가볍게 따돌리고 2위를 차지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선거에서 지금까지 좌파의 표, 특히 민주혁명당의 기본 표를 보증해주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대선 실패 후 다양한 좌파 노선 중 견제 세력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되자 당내 입지는 점차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민주혁명당과 결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⁵⁾. 당내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자 차기 대선후보 지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해 신당을 창당을 준비를 했다는 분석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쇄신운동당과 민주혁명당은 좌파 헤게모니 정당 자리를 놓고 한판 승부를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멕시코 좌파를 대표했던 민주혁명당이 국민쇄신운동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신당의 등장으로 좌파가 분열될 것이고, 결국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혁명당의 상원의원인 루이스 미겔 바르보사(Luis Miguel Barbosa)는 국민쇄신운동당이 제3의 정치세력이 되기 위해 대대적으로 ‘반민주혁명당 캠페인’을 주도할 것으로 진단했다. 국민쇄신운동당이 제도혁명당이나 국민행동당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혁명당과 경쟁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⁶⁾. 이 신당은 민주혁명당의 지도부가 우파와 연대하며 정치적 공간 확대만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전략은 제도혁명당이나 국민행동당에 이어 국민쇄신운동당을 세 번째 정치세력으로 부상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혁명당의 지지 세력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어야만 가능한 전략이므로 멕시코 내 진정한 좌파는 민주혁명당이 아니라 국민쇄신운동당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민주혁명당이 민영화와 신자유주의 체제 공고화를 기본으로 하는 페냐 니에토 정부가 주도하는 ‘멕시코를 위한 협정’(Pacto por México)을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민주혁명당 지도부가 좌파 이념이나 책임을 배반하고, 야당의 역할도 포기했다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보기에 민주혁명당 지도부는 좌파의 정책이나 이념을 포기한 변절자일 뿐이다. 오직 자신과 신당만이 퇴색하고 변절한 기존 좌파를 대치하는 혁신좌파이자 새로운 대안세력인 것이다.

멕시코 언론들은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민주혁명당 탈당과 국민쇄신운동당 창당 과정을 지켜보면서 2015년에 있을 선거를 주목하고 있다. 이

5) 최근에는 헤수스 오르테가(Jesús Ortega)의 노선을 지지하는 추쵸스(Los Chuchos)라는 그룹이 당 대표직과 지도부를 차지하며 당권을 장악했다.

6) <http://www.sdpmoticias.com/nacional/2014/07/10morena-podria-fragm...>



‘내가 132번째(#Yosoy132) 학생운동 (출처: www.solidarity-us.org)

선거는 페냐 니에토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선거를 통해 18개 주에서 주지사가 교체되며, 상당수의 원내 의원이 교체될 것이다. 이 선거에서 확실한 것은 주요 좌파세력이 분열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혁명당내 소외 세력이 신당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있다. 아직도 많은 민주혁명당 당원들과 일부 지도자들이 로페스 오브라도르에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5선거에서 미초아칸주(州)는 확실하게 민주혁명당이 유리한 지역이다. 그러나 멕시코 남동부 지역, 즉 타바스코, 차아파스, 캄페체, 유카탄, 와하카, 베라크루스, 푸에블라, 모렐로스, 케레로 지역은 국민쇄신운동당이 선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⁷⁾. 따라서 2015년 선거에서 신당이 얼마나 민주혁명당을 대체하며 약진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미 신당은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

7) <http://www.nuevaeraonline.com.mx/morena-seria-la-tercera-fuerza-poli...>

중이다. 2012년 대선과정 중 등장한 ‘내가 132번째’(#Yosoy132) 학생운동에 주목했다. 이 운동을 통해 청년층의 정치참여 욕구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를 바라는 세력들을 당 내 세력으로 흡수하려하고 있다. 또한 국민쇄신운동당은 페냐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며 정국을 페냐 니에토 대 반 페냐 니에토 세력으로 양분시키는 전략을 구사 중이다.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그 반대세력의 중심임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정국을 두 인물의 싸움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국민쇄신운동당과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국민쇄신운동당이 또 다른 좌파의 파편인지, 아니면 그 당의 슬로건처럼 ‘멕시코의 희망’(Esperanza de México)인지 2015 선거 결과가 말해 줄 것이다. 이 신당이 멕시코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정치지형에 변화를 가져올지, 아니면 분열된 좌파로 몰락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조영현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 연구교수